

[실무수습기-법원]

이론, 실재를 만나다.

이 광 덕

- 1980년 5월 생
- 광주일고 졸업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I. 들어가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골프에 비유하자면, 로스쿨에서의 지난 1년 반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과 퍼팅을 연습하는 것에 해당한다. 프로가 되어 시합에 나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갖고 닦은 실력으로 변호사 시험이라는 컷오프를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프로들이 겨루는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수습은 연습생들이 프로들의 경기를 직접 참관하고 직접 연습게임까지 해 보고 그에 대해 프로들에게 지도를 받는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골프라는 스포츠 전체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 실제 프로들의 실력을 통한 자신의 현재 상태 점검 및 목표 설정 등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준다. 실무수습은 연습에 지쳐있던 나에게도 다시 한 번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실무수습기관 중에서 내가 망설임 없이 법원을 선택한 것은 법원이야말로 소송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법과 소송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

고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법원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법원실무수습은 1기 선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희망하는 원생들이 많았는데, 역시 법원은 실무수습을 대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또한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 판단해야하며,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므로 배우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장점이 있었다.

II. 법원 실무수습의 과정

1.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

본격적인 실무수습에 앞서 법원에 지원한 원생들이 전국에서 사법연수원으로 모였다. 1박 2일의 짧은 집체교육 기간이었지만, 사법연수원을 견학(?)하는 기본에 들떠서 연수원으로 향했다. 지방에서 하루 전에 올라오는 수습생들을 위해 미리 숙소까지 잡아주는 센스에 수습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갔다. 첫 날 오전에는 개강식을 거쳐 교육 안내 및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소개가 있었다. 오후에는 <법조인의 에티켓>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들었는데, 가벼운 주제로 먼저 수습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배려가 엿보였다. 점심 후에는 <민사절차론 및 민사기록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곧이어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로는 한 학기 이상에 걸쳐서 배워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수습생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반짝거리며 수업에 임하는 모습들이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법정변론 기법>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형사절차론 및 형사기록 보는 법>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사법연수원은 수준 높은 강의를 실력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문득 연수원생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배운 기록 보는 법과 절차론 등이 후에 법원에서 실무수습 중 실제 기록이나 법정변론실습용 기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수원에서의 짧은 소집 기간이 끝날 무렵, 실무수습을 담당하시는 연수원 교수님께서 각자가 배정된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될 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셨다. 실례는 마음과 기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함께 안고 집으로 돌아와 본선에 오르는 운동선수의 마음으로 본격적인 법원 실무수습을 준비했다.

2.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아침 일찍 일어나 살짝 들뜬 기분엔 법원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습생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은 분주했다. 더운 날씨였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도 거의 켜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놀랍고 안쓰럽기도(?) 했다. 제일 먼저 법원의 각 실과 과 소개 및 청사 안내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고등법원과 통로로 연결이 되어있는 구조여서 처음엔 미로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습생들은 출입용 카드를 하나씩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통행이 제한 되어있는 곳들도 다닐 수 있어서 마치 실제 법원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들곤 했다. 법원에서는 실무수습생들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껏 자료를 찾거나 필요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때문에 자료를 살펴보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훨씬 집중할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법원장님께 부임신고를 하였는데, 인상 좋으신 법원장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맞아주시며 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해주었다.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잊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16명의 수습생들은 6개 조로 나뉘어서 담임지도관님과 부지도관님의 지도를 받았는데, 담임지도관님이 민사 담당이시면, 부지도관님은 형사 담당인 분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나의 지도관님은 형사 단독이셨는데 수습기간 동안 점심도 사주시며 우리들의 질문세례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항상 정중하게 우리를 대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판사님들은 모두 사적인 자리에서는 따뜻하시고 친절하셨지만, 법정에서 뵈었을 때는 그 위엄이 굉장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들을 예리하고 차갑기까지 하였다. 부지도관님은 민사 합의부를 담당하고 계신 분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셨는데, 유머로 수습생들의 긴장을 풀어주시기도 하셨지만, 판사직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소신을 밝히실 때에는 그 애정과 자부심이 놀랄 정도여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던 눈빛이 잊혀 지지 않는다. 부지도관님은 법정방청을 했을 때에도 당사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증인 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할 때에는 날카롭게 파고드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송에서 실제 진실을 가

러내는 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날부터 쏟아지는 기록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양이었다. 선배 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지만, 이 기록들을 다 보고 수습을 마칠 수 있을까 싶었다. 한 건의 기록의 양이 민법 기본서 서너 개를 합쳐놓은 정도인 사건도 있었다. 원하면 보고 싶은 기록을 더 주신다고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기록은 실컷 볼 수 있는 기회다. 기본적으로 법원실무수습생들은 17여 종의 넘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수습기간 중에 법정변론실습도 실시해야 한다. 법정방청도 민사, 형사, 조정, 영장실질심사, 국선전담번호인 보조사건 방청 등 다양하다. 따라서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기록 검토와 서류 작성에 매달리는 수습생들이 태반이었다. 실제 기록은 퇴근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이는 실제 사건에 관한 기록에는 소송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수습생들도 이 점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곤 했다.

둘째 날부터는 설 틈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다. 일단은 민사·형사신건기록 검토, 민사·형사 법정방청기록 검토, 민사조정기록 검토, 국선전담번호 보조사건 기록 검토, 구속영장 기록 검토,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 법정변론실습관련 기록 검토 및 검토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틈틈이 했고, 사이사이에 다양한 법정방청과 각 지도관님들의 기본 교육에 참여했다.

살아있는 기록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추려내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었다. 나아가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진실을 가려내는 일이란, 판사에게는 그로인해 부여된 권위만큼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 조원들이 기록을 살펴보고 원고가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건이 소송에서는 피고의 패배가 명백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실무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각 조마다 달리 배정된 국선전담보조 사건을 위해 국선전담번호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소송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당사자를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변호사님이 사건에 관하여 추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법조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

순히 국선전담변호사를 보조하는 일이었지만 공판에 참여해서 방청할 때는 마치 내가 맡은 사건처럼 긴장되기도 했다.

다양한 실무수습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법정방청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법학사 출신인 나에게 법서의 내용들은 너무 어렵고 늘 어렵풋하게만 다가왔는데 법정방청에서는 법서의 내용들이 마치 3D 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지곤 했다. 인정신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을 직접 보고 나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 교수님들께서 소송절차는 직접 한 번 해봐야 제대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법학 공부에 조금 지치고 무미건조하게 책만 보던 나에게 실무수습은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서 커다란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다. 법정방청 중에서는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있었는데 다른 법정방청과 달리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수습의 기회가 아니면 방청할 수 없다. 판사님도 피의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수습기간 중 다행히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무래도 절차의 특성 상 일반 법정방청보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서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판사님께서는 방청하는 수습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주시고 구속여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나중에 기본교육 시간을 통해 상세한 설명까지 해주셨다.

실무수습 중 하루는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판사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판사님은 법정 외에는 거의 판사실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기록을 검토하는 일에 매달리셨다. 판사실은 너무 조용해서 줄음이 울 지경이었는데, 판사님은 대단한 집중력으로 그 많은 기록들을 빠르게 검토하시는 모습이 마치 생활의 달인을 떠올리게 했다. 수습생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기록을 검토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는 일을 판단해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법원실무수습의 특징으로 법정변론실습을 꼽을 수 있다. 주어진 기록을 가지고 실제 소송과 같이 소장, 준비서면 등의 법 문서를 작성하고 지도관님들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변론기일을 열어 실습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에서 배부 받은 책자 중에 <법정변론 실습기

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책에 민사와 형사 법정변론실습을 위한 기록이 실려 있다. 원칙적으로 실무수습생은 자신의 지도관님이 담당하는 바에 따라 민사나 형사 중 하나의 법정변론실습을 하면 되지만, 수습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지도관님의 선한(?) 의도로 민사와 형사 법정변론실습을 모두 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정으로 수습생 모두 주말을 반납하고 늦은 밤까지 매달려 문서 작성과 변론준비를 마쳤다. 혼자서 기록을 볼 때보다 조별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생각하지 못한 쟁점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다. 법정변론실습을 하는 날에는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다. 최고의 변론을 위한 쪽에서는 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신이 담당할 부분의 변론을 연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우리 조의 순서가 왔는데 실제 재판처럼 수습생들은 열띤 공방을 펼쳤다.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나 주장의 요지를 변론하기도 하고, 참신한 법리와 치밀한 주장을 통해 재판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여 나와 다른 원생이 증인의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사실관계 상 7세 정도의 어린아이여서 우리 두 사람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배석판사님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시기도 했고, 재판장님께서서는 우리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진짜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동조해주셔서 즐겁게 변론을 마칠 수 있었다. 민사와 형사 재판장님들께서 수습생들 모두 예상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는데 특히 프리젠테이션 등을 이용한 변론 등이 좋았다고 격려해주셨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으셨고 수습생들의 많은 질문에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법정변론실습에 대한 수습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소송의 절차, 법리의 전개와 주장 방법, 구두 변론의 연습, 법 문서 작성 요령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법정변론실습은 법원실무수습만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실무수습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수습생들은 그동안 검토한 기록들에 대한 보고서, 법정 방청기, 법정변론실습 관련 각종 서면 등 제출 서류 작성에 몰두했다. 그 모든 보고서를 다 모아서 묶고 나니 한 사람 당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수습생들 모두 그 두께에 놀랐고 그 일을 무사히(?) 이뤄낸 것에 스스로 대견했다.

실무수습 일정상 맞지 않아 경매(입찰)법정 방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 이뤄지는 절차를 꼭 한 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 날에 경매에 관한 기본 교육을 들은 후 기대치가 더 높

아진 터라 더욱 아쉬웠다. 하는 수 없이 입찰봉투와 관련서류를 기념품(?)으로 챙겨 나오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실무수습의 마지막 날에 지도관님과 부지도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야 비로소 2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버렸음을 깨달았다. 수습을 무사히 마친 시원한 마음과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는 서운한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지도관님은 덕담을 해주시며 우리의 건승을 빌어주셨다. 화창한 날씨와 정든 법원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찍고 법원을 떠나면서, 수습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법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기에는 2주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만, 나는 수습생들 모두가 법조인이라는 꿈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한 발을 내딛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서의 내용 그 너머에 있는 사람과 진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워졌다고 믿는다.

III. 나가며

앞서 법조인의 길을 골프에 비유했었다. 골프로 치자면, 실무수습은 골프연습장에서 연습만 하며 답답해하던 나에게 필드에서 실제로 시합을 하는 즐거움,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치열함, 선수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느끼게 해준 최고의 연습시합이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연습장에서 하는 수많은 스윙과 퍼팅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앞으로 프로의 무대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한 귀한 땀을 흘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에 힘겨워하고, 눈앞에 있는 연습량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자신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잠시 망각하고 있는 골프연습생과 같은 상황에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생생한 소송의 현장인 법원 실무수습을 권한다.